

위대한 시민과 함께 '품격도시 익산' 을 열다

익산 첫 3선 시장, 정현을호의 집념이 일궈낸 대전환



정현을 시장(시인)이 이끈 익산시정이 민선 6~8기를 거쳐 마침내 10년의 위대한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더 큰 익산 위대한 시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를 기치로 내걸고 힘 없이 달려온 지난 10년은 익산시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지형 변화와 질적 성장을 이룬 황금기로 평가받는다.

해묵은 현안을 정면 돌파하고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선점한 정현을 시장의 리더십은 익산을 호남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세웠다. 임기 종료와 함께 민선 9기로 비상을 넘기는 정현을 호 10년의 성과와 도시 대전환의 발자취를 ‘자음’, ‘키움’, ‘보듬’의 3대 테마로 집중 조명한다.

#자음 - 새로운 익산을 짓다

정현을 호 10년의 가장 가치적 성과는 도시의 하드웨어를 완전히 새로 복원하고 재창조한 지음의 서사다.

가장 대표적인 결실은 익산의 새로운 상징이 된 신철사 건립이다. 시는 무려 6년여 경과해 정밀유지인간 D등급을 받았던 노후 구청사를 시민 중심의 열린 복합청사로 재탄생시켰다.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공간을 넓혔다.

오랫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교통 인프라의 막힌 혈맥도 전격적으로 뚫어냈다. 주민의 숙원이었던 호남고속철도 경화유교 개체공사를 안전하게 완공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산단 배후 길목인 하나로(제3산단 연무C)를 확충 10년 만에 완전히 개통했다.

이로써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며 물류 수송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구도심 역시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개통과 중앙농 치킨로드 조성을 통해 유통인구가 다시 유입되는 등 경제적 활력을 되찾고 있다.

나눔한 도로 확충을 넘어 미래형 스마트 교통 자족도시로의 진화도 마쳤다. 스마트 주차 통합 서비스를 구축해 도심 주차난을 과학적으로 해결했으며, 익산역 주차타워 건립과 대

리주차 서비스 도입으로 역 이용객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현재는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점진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인프라의 견고함은 안전 분야 성과로 이어져, 여성친화도시 특화 사업 체계화는 물론 전북 최초로 4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대기록을 세웠다.

#키움 - 익산의 내일을 키우다

익산의 내일을 가꾸는 ‘키움’의 핵심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미래 첨단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다.

정현을 호는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 제도를 전격 도입하며 대한민국 농촌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신재생에너지 수익 등을 고품질 농민에게 연금으로 환원하는 이 모델은 전국적인 표준으로 확산했다.

또한 농가 소득 증대의 일등 공신인 ‘마을직자상거래’ 육성을 통해 열세 농가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전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유통방향을 안착시켰다.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의 영로 확장도 독보적이다. 국내 최초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유치해 조성했으며, 농물헬스케어 클러스터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확정 지으며



익산시청 신철사



다이로움 출시 기념행사



코스트코와 상생 협약

국가예산 1조원 시대 개막 · 공약 이행 5년 연속 '우수' 미래 혁신 철학으로 다져진 주춧돌, 민선 9기 도약 원동력

고부가가치 바이오·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단 최초 3대 특구로 선정되는 행정 성과를 달성하며 대기업 유치와 대규모 투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많은 시민들이 갈망하던 호남권 첫 ‘코스트코 점포’의 개점 추진 역시 막바지 행정 절차를 완결하며 착공 준비를 본격화했다.

익산의 자립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익산 다이로움’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다이로움은 지역 내 소비 증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의 가고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시민 생활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청년들을 위한 행정적 배려도 잊지 않았다. 대한민국 1호 ‘청년시정’을 개칭해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주거와 문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 전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며 젊은 도시 익산의 토대를 탄탄히 다졌다.

#보듬 - 모두의 삶을 보듬다

과거의 아픔과 환경 오염이라는 해묵은 불명예를 치유하고 시민의 삶을 보듬는 ‘보듬’ 정책은 정현을 호의 인간 중심 철학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극적인 전환은 남산 폐석산의 불법매립 폐기물을 전격적으로 이적 처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십 년간 지속된 환경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과감한 결단이었다.

더불어 악취와 오염의 근원지였던 왕궁현업축사의 매립 및 매입을 마침내 100% 완료했다. 이 자리에 친환경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왕궁환경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기적을 일궈내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함께 광역상수도 전환을 이룬 것 역시 기억할 성과다.

회색빛 공업도시의 이미지는 맑은 숲을 쉬는

‘녹색 정원 도시’로 변모했다. 도심 속 어귀를 확보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선제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심 곳곳에 대형 공원을 조성했다.

여기에 전부 도내 최초로 국립 치유의 숲을 성공적으로 유치 및 조성하며 중부권 최고의 생태 힐링 거점을 완성했다.

복지 안전망 역시 한 치의 빈틈없이 촘촘하게 구축됐다. 전국적인 벤처마케팅 대상이 된 ‘다이로움 나눔 공간’과 ‘다이로움 이동 박차’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격차와 생필품을 손쉽게 보장하는 익산형 나눔 문화의 상징이 됐다.

또한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젊은 세대를 위해 ‘신혼부부·청년 주거사다리’ 정책을 파격적으로 펼쳐 청년층의 지역 안착을 도왔다. 교육발주특구 시범 선도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며, 보육부터 고등 교육, 취업까지 연계되는 공공 교육 혁신의 도시로 우뚝 서게 됐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10년의 행정이 익산의 어제와 오늘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행정이란 마음으로 땀 흘려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장은 “익산의 대전환을 믿고 지지해 주신 위대한 시민들이 계셨기에 국가 예산 1조 원 시대와 5년 연속 공약 이행 우수라는 대기록이 가능했다”라며 “결교한 주춧돌 위에서 새롭게 출발할 민선 9기 익산시가 더 넓어, 더 위대하게 비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KTX 익산역 중앙 지하차도 개통식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